

## 방언의 월 끝 억양의 유형

### Intonation Types of Sentence Terminal in Korean Dialects

이 병 운\*

Byung-Woon Lee

#### ABSTRACT

This study is to classify intonation types of sentence terminal in accordance with sentence form in Korean dialects. Intonation types of sentence terminal in declarative, interrogative (yes-no and wh-sentence), imperative, suggestive of Gyeongnam dialect are low fall, high fall, high fall, low fall, so are not distinctive by intonation, but distinctive by final ending morphemes. But those of Jungbu dialect are low fall, rise-fall and full rise, high level, low rise-fall. Those of Jeonnam dialect are low level, rise-fall and full rise, high level, high level. So those of Jungbu dialect are similar to Jeonnam dialect.

**Keywords:** Intonation Type, Low Fall, High Fall, Rise-Fall, Full Rise, High Level

#### 1. 머리말\*\*

방언의 특성 가운데서도 억양은 다른 어떤 특성(문법적, 어휘적)보다도 끈질기게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언 중에서도 전라방언과 경상방언은 한반도 남부의 대표적 방언으로서 억양적 특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남방언과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중부방언과 비교하였다.

우리말에서 억양에서 월(문장) 끝의 억양은 월의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높임법의 ‘해’체와 ‘해라’체에서는 서술월, 물음월, 시킴월, 피임월의 변별이 형태에 의해 되지 않으므로, 월 끝에 놓이는 억양에 의해 변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월 끝에 놓이는 억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피실험자 중에서 경남방언화자는 서부경남 지역에서 나서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 중부방언화자는 서울에서 나서 40여 년 간 거주한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전남방언화자는 광주에서 나서 40여 년 간 거주한 50대 초반의 남성이다.

음성분석프로그램은 Entropic의 ESPS/Xwavez이며 높이는 기본주파수에 의한 분석이다.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 논문은 한국음성과학회 제11회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2. 월 끝의 억양

월 끝의 억양을 서술월, 물음월(판정 물음월과 의문사가 물음월, 확인 물음월), 시키피월, 피입월의 억양을 살펴본다. 특히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 높임법의 ‘해’체와 ‘해라’체에서는 씨끝의 끝이 같아 억양에 의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

### 2.1 서술월의 억양

먼저 경남방언의 서술월의 억양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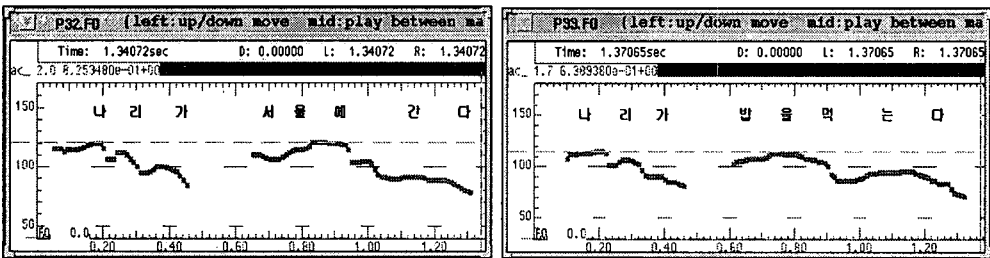


그림 1. 경남방언의 서술월

경남방언에서 서술월의 경우 월의 끝 억양은 완만한 내림조를 보인다. 이에 비해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수평조이다.

중부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이 완만한 내림조를 이루며 끝이 약간 올라간다. 전남방언에서는 낮은 수평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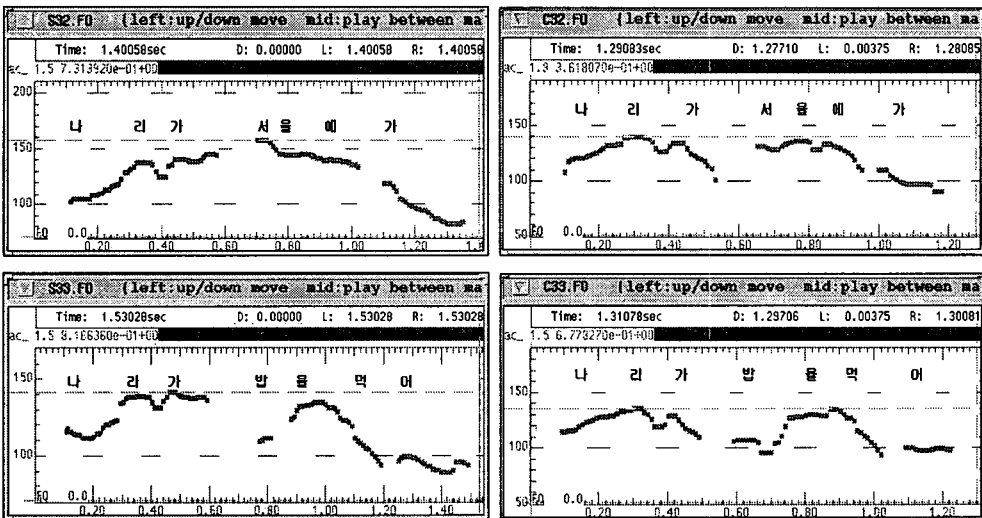


그림 2. 중부방언(왼쪽)과 전남방언(오른쪽)의 서술월

2.2 물음월의 억양

물음월의 억양은 판정 물음월, 의문사 물음월, 확인 물음월로 나누어 살펴본다.

2.2.1 판정 물음월

경남방언에서는 물음월이더라도 월 끝의 억양이 올라가지 않고 완만한 내림조이다. 이것은 낮춤말일 경우, 물음법의 씨끝이 의문사가 없을 경우는 '-나'를 의문사가 있을 경우는 '-노'를 취하기 때문에 억양에 의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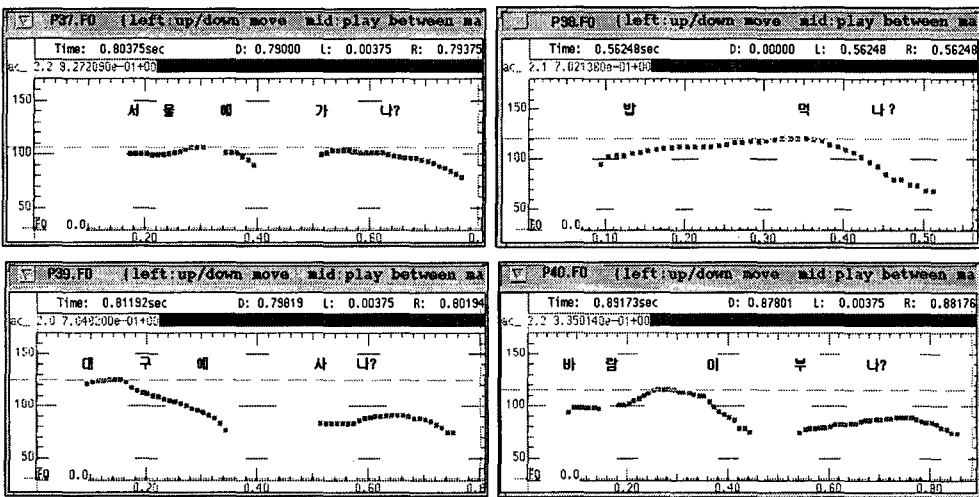


그림 3. 경남방언의 판정 물음월

위에서 나타나는 경남방언의 완만한 내림조와는 아래의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판정 물음월의 경우 월 끝의 억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온음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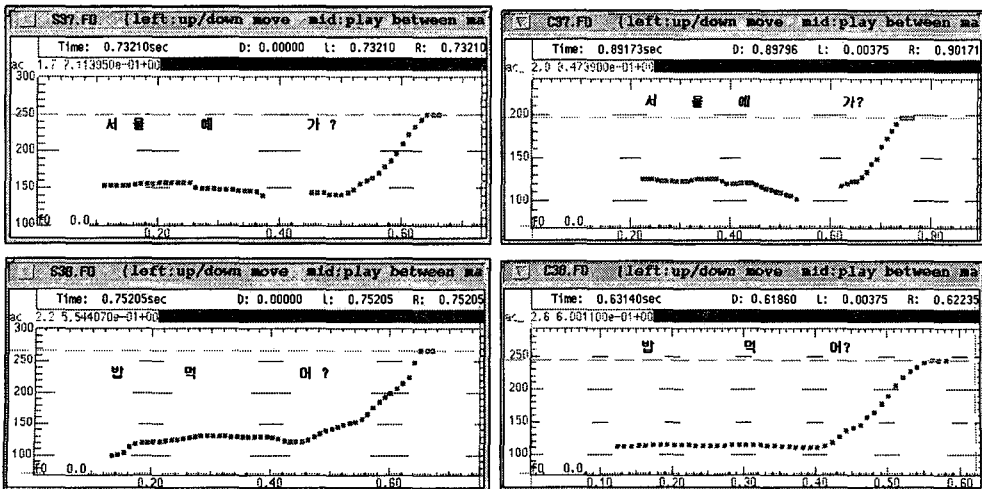


그림 4. 중부방언(왼쪽)과 전남방언(오른쪽)의 판정 물음월

### 2.2.2 의문사 물음월

경남방언에서는 의문사가 있을 경우라도 월 끝의 억양은 내림조이다. 그것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물음월의 씨끝 '-나'와 의문사 물음월의 씨끝 '-노'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억양으로서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씨끝으로 변별하기 때문에 억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부방언이나 전남방언의 경우, 판정 물음월이나 의문사 물음월에서 씨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억양으로써 변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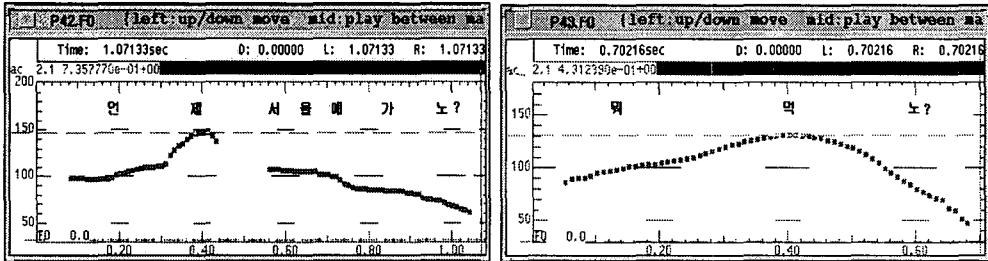


그림 5. 경남방언의 의문사 물음월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이 오르내림조이고, 전남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이 계속 올라가는 온오름조나 오르내림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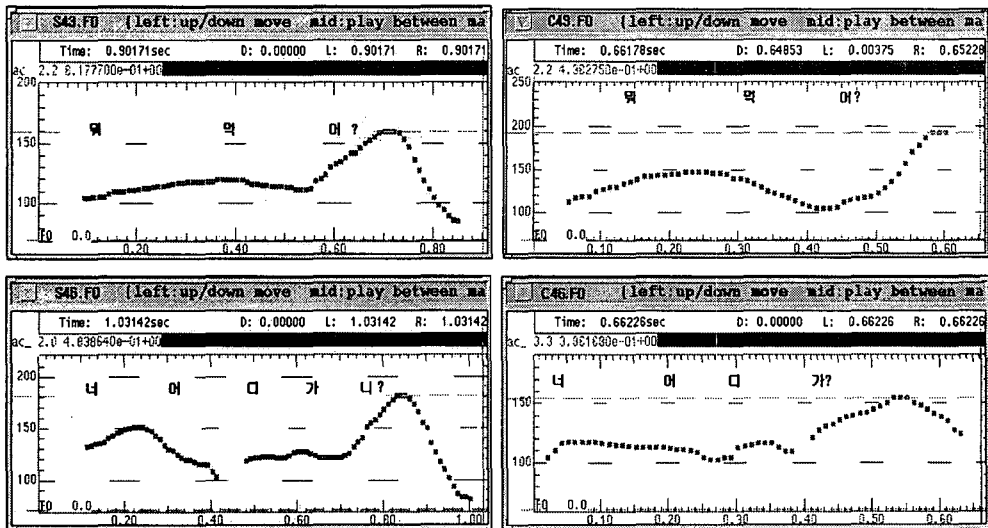


그림 6. 중부방언(왼쪽)과 전남방언(오른쪽)의 의문사 물음월

### 2.2.3 확인 물음월

경남방언에서는 확인 물음월의 끝 억양은 다른 물음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문사 물음월의 끝 억양은 급격한 내림조이고, 확인 물음월은 완만한 내림조이다. 그런데 확인 물음월의 경우, 초점이 부정대어써인 '어디'에 놓이기 때문에 의문사 물음월에서 완만한

오름조이나 확인 물음월에서는 급격한 내림조이다. 또한 확인 물음월의 씨끝(‘-나’)은 의문사 있는 물음월의 씨끝(‘-노’)과는 다르고 판정 물음월과 같다. 곧 확인 물음월은 경남방언에서 판정 물음월에 초점이 놓인 것과 같은 억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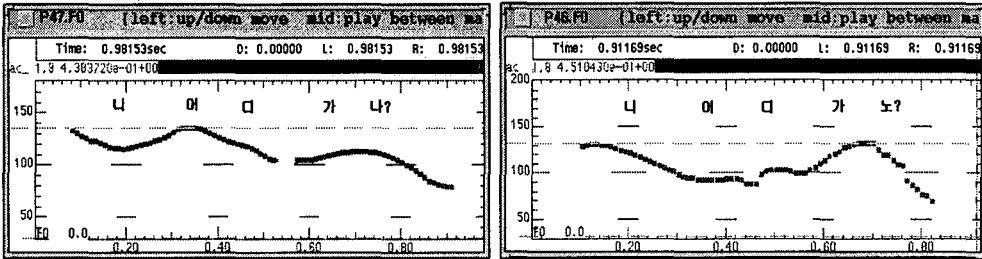


그림 7. 경남방언의 확인물음월(왼쪽)과 의문사 물음월(오른쪽)의 억양

전남방언과 중부방언에서 확인 물음월에서는 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오름조이지만, 의문사 물음월은 월 끝의 억양이 오르내림조이다. 또한 ‘어디’가 확인 물음월에서는 초점을 받아 높고 오름의 정도가 크나, 의문사 물음월에서는 낮고 완만한 오름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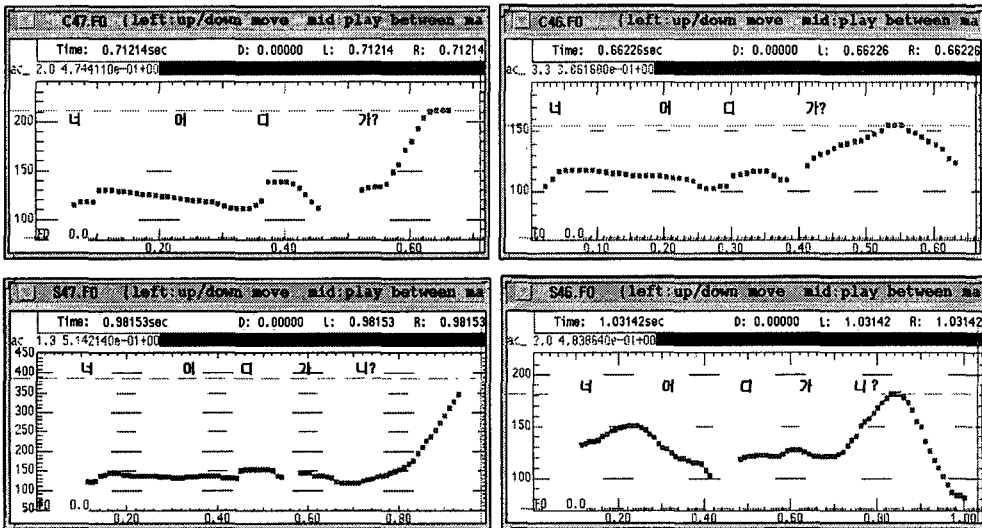


그림 8. 전남방언(위)과 중부방언(아래) 확인 물음월(왼쪽)과 의문사 물음월(오른쪽)

### 2.3 시킴월의 억양

시킴월에서도 경남방언에서는 시킴법의 씨끝형태로 변별되기 때문에 억양에서는 서술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평조이거나 내림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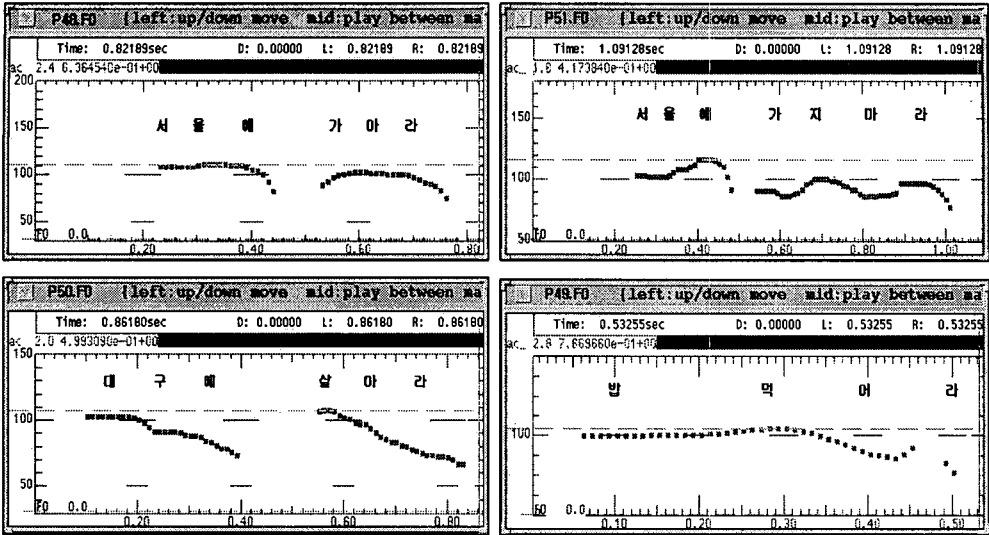


그림 9. 경남방언의 시킴월의 억양

그러나 아래에서 나타나는 경남방언의 서술월과 시킴월의 차이를 보면, 시킴월에서는 서술월보다 월 끝의 하강폭이 크고, 서술월보다 상대적으로 끝 어절의 첫 억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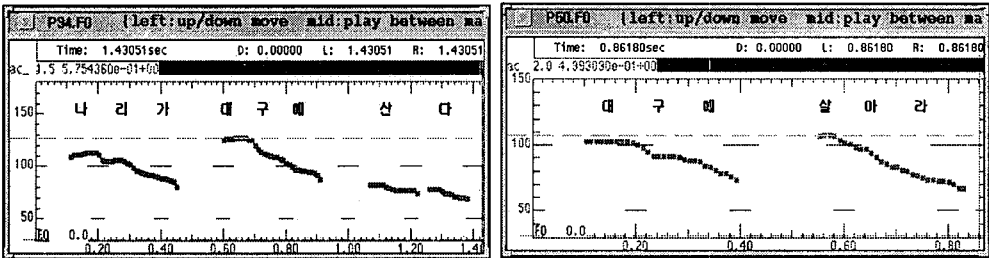


그림 10. 경남방언의 서술월(왼쪽)과 시킴월(오른쪽)의 억양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시킴월의 억양은 서술월의 억양보다 내림의 폭이 크고, 월 끝의 억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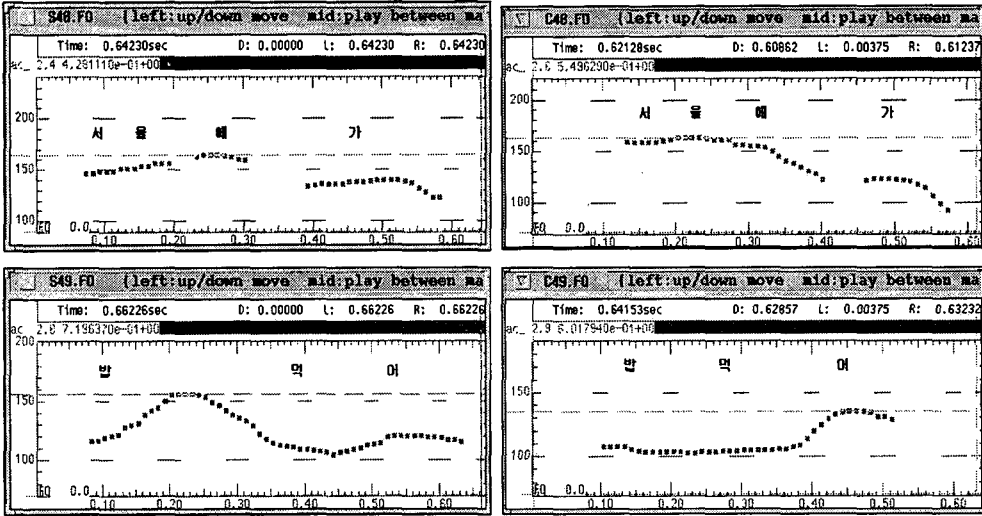


그림 11. 중부방언(왼쪽)과 전남방언(오른쪽)의 시킴월의 억양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 시킴월의 끝 억양이 수평조를 보이면서도 서술월과 같이 끝이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끝나는 것이 서술월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중부방언에서는 서술월에서는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끝이 약간 올라간다. 그러나 시킴월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끝에서 내려가지 않고 끝 억양에서 멈춰 버린다. 또한 시킴월 끝의 억양이 서술월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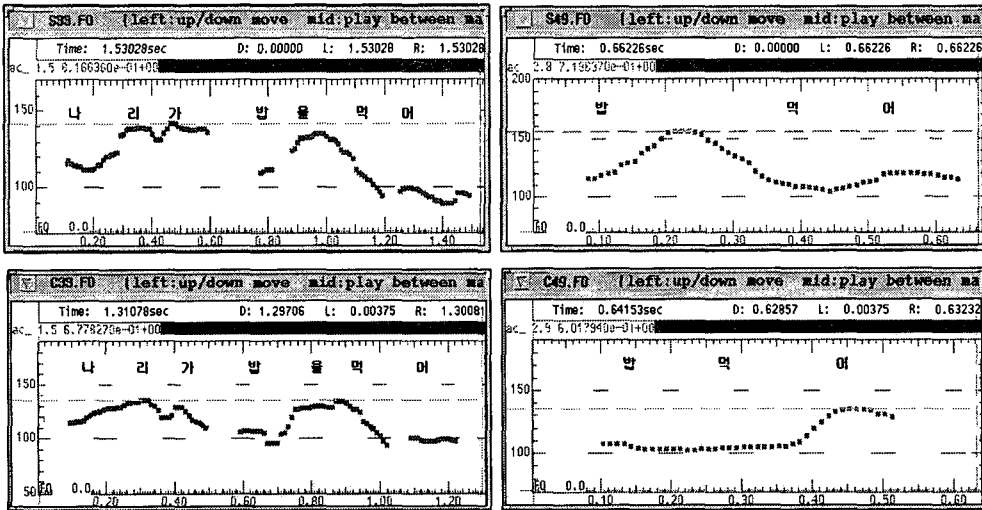


그림 12. 중부방언(위)과 전남방언(아래)의 서술월(왼쪽)과 시킴월(오른쪽)의 억양

전남방언에서도 중부방언과 같이 서술월의 끝 억양이 낮은 수평조이거나 완만한 내림조인데 반해 시킴월은 높은 수평조이거나 급격한 내림조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끝 억양이 높고, 짧게 끝나버린다.

## 2.4 피임월의 억양

피임월에서도 경남방언은 씨끝의 형태가 차이가 나므로 서술월과 억양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서술월과 피임월이 모두 내림조이나 피임월은 서술월에 비해 내려가는 정도가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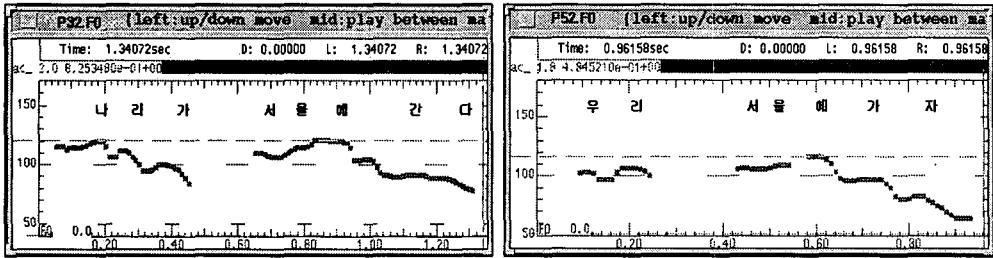


그림 13. 경남방언의 서술월(왼쪽)과 피임월(오른쪽)의 억양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의 피임월의 억양은 서술월, 시킴월과는 다르다. 곧, 서술월은 완만한 내림조이거나 낮은 수평조이고, 시킴월은 높은 수평조이고 끝이 짧으나, 피임월의 억양은 굴곡이 있다.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의 피임월은 경남방언과는 달리 단선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오르다가 내려가는 오르내림의 굴곡이 나타난다. 피임월은 시킴월과 같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탁의 정도에 커감에 따라 이러한 굴곡(김침)이 많아지고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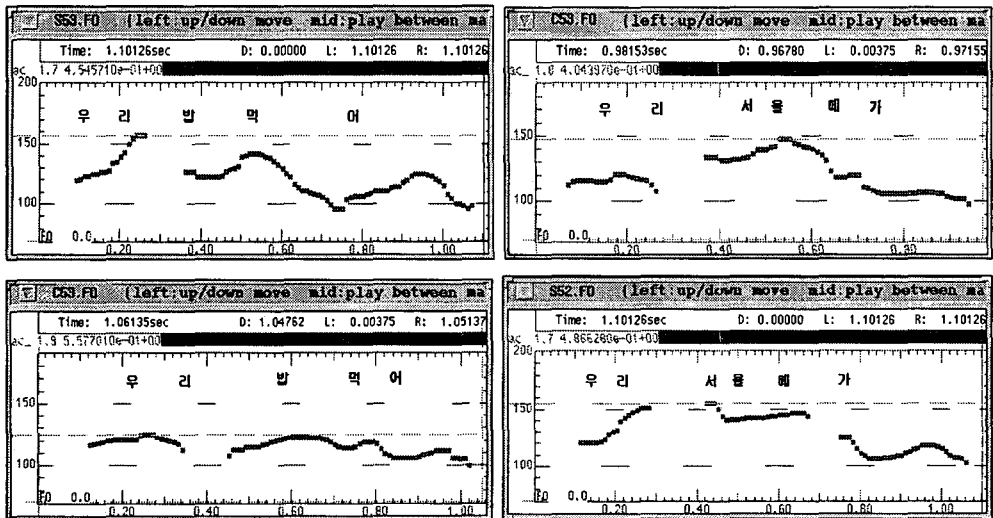


그림 14. 중부방언(왼쪽)과 전남방언(오른쪽)의 피임월의 억양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 시킴월과 피임월의 억양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중부방언에서는 시킴월의 끝 억양은 피임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수평조를 이루다가



끝나버리지만, 피임월의 끝 억양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오르다가 내려가는 굴곡조를 나타낸다. 전남방언에서도 중부방언과 유사하게 시킵월의 끝 억양이 높은 데서 수평으로 나아가다가 똑 끝나버리는 반면에, 피임월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시작하여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내려간다. 이러한 감침이 피임월의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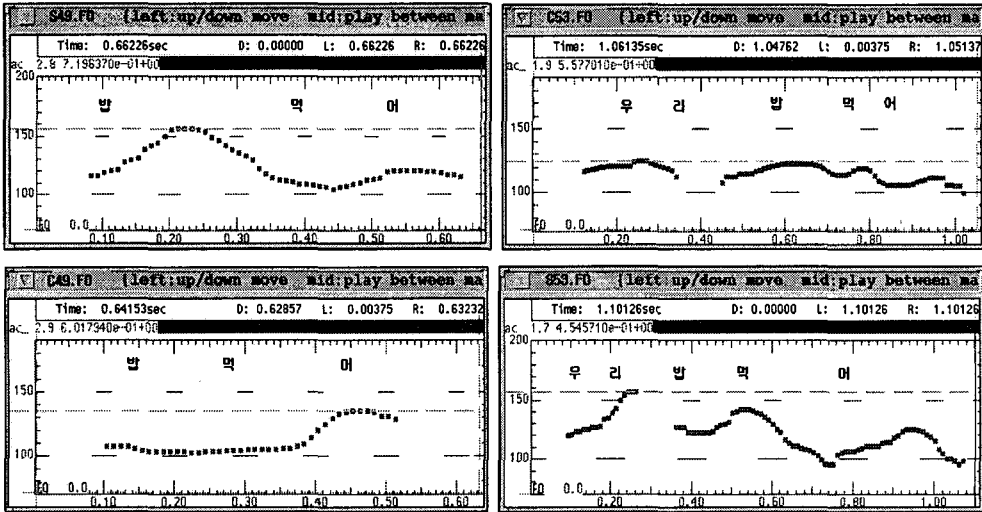


그림 15. 중부방언(위)과 전남방언(아래)의 시킵월(왼쪽) 피임월(오른쪽)의 억양

서술월, 물음월, 시킵월, 피임월에서 월 끝의 억양에서도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거의 모든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경남방언은 이들 방언과는 여러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전남방언은 중부방언에 잘 동화할 수 있으나 경남방언은 잘 동화하지 못한다.

### 3. 맺음말

방언에 나타나는 월 끝의 억양적 유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남방언은 서술월의 끝 억양이 완만한 내림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부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이 완만한 내림조를 이루다가 끝이 약간 올라갔다. 전남방언에서는 낮은 수평조로 나타났다.
- (2) 물음월은 판정 물음월, 의문사 물음월, 확인 물음월로 나누어 살폈다.

첫째, 판정 물음월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서는 완만한 내림조여서 서술월과 억양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 구별할 수 없으나, 서술월의 씨끝(-는다)과 판정 물음월의 씨끝(-나)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이 온오름조로 나타났다.

둘째, 의문사 물음월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서는 급격한 내림조이고, 씨끝(-노)으로도 구별된다. 중부방언에서는 의문사가 물음월의 경우 오르내림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남방언에서는 은오름조로 나타났으나, 감정적 태도에 따라 굴곡조나 내림조로도 나타났다.

셋째, 확인 물음질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서는 의문사 물음질과 비슷하게 끝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내림조이나, 의문사 물음질과의 차이는 초점을 받은 부정대어씨가 강세를 받아 의문사보다 억양이 높다.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초점을 받은 부정대어씨가 의문사에 비해 억양이 높고, 은오름조를 이룬다.

- (3) 시킴질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서는 끝이 똑 떨어지거나 급격한 내림조를 이루며, 씨끝의 형태(-어라)로도 변별된다.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높은 수평조나 높은 수평조에서 똑 떨어지는 억양을 이룬다. 서술질이 완만한 내림조나 낮은 수평조임에 비해, 시킴질은 높은 수평조나 똑 떨어지는 억양이다.
- (4) 꺾임질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서 완만한 내림조를 이룬다. 시킴질에 비해 억양이 낮고, 서술질과 비슷하다. 경남방언에서는 억양으로 변별하기보다는 씨끝의 형태(-자)로 변별한다.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에서는 끝이 오르다가 내려가는 낮은 오르내림조를 이룬다. 서술질이 낮은 내림조이거나 낮은 수평조임에 비해, 시킴질은 높은 수평조이고, 꺾임질은 낮은 오르내림조이고 오르내림의 굴곡이 길다. 이러한 꺾임질의 굴곡(감침)은 부탁의 정도가 클수록 길어지고 많아진다.

### 참 고 문 헌

- 김미란 외. 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 7(4), 203-217.
- 서정목. 1987. *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하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병운. 1997. "경남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7, 79-103.
- 이병운. 1998. "중부방언, 경남방언, 전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연구."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8, 1-62.
- 이숙향. 1985. "한국어 문미 억양에 관한 연구." *말소리* (대한음성학회), 11-14.
- 이영길. 1986.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의미." *한글* (한글학회), 191.
- 이영길. 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현복.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서울대어학연구소), 10.2.
- 이호영. 1993.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유형론."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15, 129-151.
- 허 용. 1986.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접수일자: 2002. 3. 31.

게재결정: 2002. 5. 7.

#### ▲ 이병운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우: 609-390)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Tel: +82-51-510-2603 Fax: +82-51-583-2053

E-mail: bwnlee@pusan.ac.kr